

21세기에 대비한 보건복지정보화의 추진방향



蔡映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세

계는 지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이용이 생활전반에 보편화되는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경제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장은 단일화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는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각 분야의 생산성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에 누적된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정보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가오는 21세기의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세계수준의 정보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정보화촉진법 등 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이에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화를 수용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정보화 사업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정보화계획은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지와 인식의 전환은 물론 스스로 정보마인드를 제고하여 생활 속에서도 정보화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까지 행정, 교육, 연구, 의료 등 분야별로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정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정보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1972년 보건사회전산망 구축계획을 시작으로 1994년 국민복지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996년 보건복지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등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빠른 인식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추진체계의 미비 및 상업성의 부재로 정보화의 전개는 사실상 타 분야에 비해 부진한 실정에 있다. 보건복지정보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증대된 의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의료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정보화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내실있는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정보화 사업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는 정보화계획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지원 하에서 민간주도의 정보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정보화를 확산 시키는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 확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민간주도의 정보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소비자나 보건·의료기관이 정보화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이 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하며 민간 보건·의료기관 특히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통해서 경영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한다면 보건복지정보화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환경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복지선진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